

# 마크롱 “러, 中 속국화” 발언에 푸틴 ‘발끈’

### 크렘린 “의존적 관계 아닌 전략적 파트너” 주장 중에 블라디보스톡 항구 사용권 넘겨 “모순” 지적

러시아가 “크렘린이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했다”는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발언에 발끈했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의존적 관계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 관계”라며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와 중국의 긴밀한 관계가 이끌어갈 새로운 세계에 익숙해져야 한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같은 날 알렉산드로 그루슈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도 “서방, 특히 프랑스가 러시아와 중국을 포용하는 진정한 다자 간 국제 관계 형성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프랑스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이 같은 크렘린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러시아 속국화’ 발언에 대한 반박으로 나온 것이다. 앞서 15일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을 순방 중인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만찬 직전 가진 프랑크 일간 코피니옹과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아시아 강대

국인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립된 러시아가 사실상 중국에 굴종하는 형태에 돌입했다”면서 “러시아는 발트해에서 통제권을 상실했고 중립국인 스웨덴과 핀란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촉발하는 등 지정학적으로 패배한 것이 분명하다”며 러시아를 비판했다.

러시아 측의 반발과 달리 러시아가 중국에 의존적인 ‘속국’이 되고 있다는 마크롱의 발언은 일리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망에서 퇴출된 러시아는 대러제재에 참여하지 않은 중국과 무역 규모를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러시아산 원유와 원자재에 대한 대중국 수출 대금을 위안화로 받기 시작하는 등 러시아의 대중국 의존도는 계속해서 높아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을 향한 러시아의 애정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15일 홍콩 민보 등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는 165년 만에 블라디보스톡 항구 사용권을



14일(현지시간) 에마누엘 마크롱(왼쪽) 프랑스 대통령이 파리 엘리제궁을 방문한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환영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중국에 내줬다.

극동의 부동항으로 알려진 블라디보스톡은 러시아가 부동항 확보를 위해 1860년 청나라로부터 할양받은 지역이다. 당시 러시아 제국은 부동항을 통한 해상 진출을 꿈꾸며 블라디보스톡 항구 건설에 심혈을 기울였다.

블라디보스톡 항구 사용이 가능해짐

에 따라 중국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린성과 헤이룽장성 등 중국 동북 지역은 지리적으로 바다와 인접하지 않은 탓에 이곳에서 생산된 물건들은 라오닝 항구에서의 환적을 위해 육로로 1000km 이상을 이동해야만 했다. 반면 동북 지역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의 거리는 200km에 불과해 육로

운송에 드는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극동 지역 핵심 항구 사용권마저 내준 러시아의 행보가 결과적으로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 재편을 도와주는 모양새여서 ‘중국에 의존적이지 않다’는 러시아 측의 주장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명준 기자 mjkim@skyedaily.com

## 글로벌 클라스

### 단속 회피 美 음주운전자 개와 자리 바꿨지만 들통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사람이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개와 자리를 바꿨다가 체포됐다고 AP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경찰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콜로라도주 이스트 플레인스에 있는 인구 약 1300명의 스프링필드에서 13일 밤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린 운전자 차에서 내리기 전에 조수석으로 움직였다고 밝혔다.

운전자는 자신이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그가 분명히 술에 취한 흔적을 보였다고 경찰은 강조했다.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질문했을 때 그는 도망쳤고 약 18m 이내에서 잡혔다고 경찰은 말했다.



버드 라이트 맥주 캔 코스를 입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는 모습. 기다린 캡처

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된 이 남성은 음주 또는 약물로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됐다.

앞서 5일 캔사스주에서는 버드 라이트 맥주 캔 코스를 입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체포됐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이 운전자는 캔사스주 토파카에서 약 80km 떨어진 35번 주간 고속도로에서 체포돼 카운티 교도소로 이송됐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미국 내 모든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31%가 음주 운전과 관련이 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평균 약 1만850명이 음주 운전 사고로 사망했고, 특히 2021년에는 음주 운전으로 1만3884명이 사망했다고 NHTSA는 밝혔다.

한원석 기자 wshan@skyedaily.com



주한 미군 기지에서 일했던 전직 미군무원이 건설업체로부터 40만 달러(약 5억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합뉴스

## 美 국적 한인 군무원, 뇌물수수·사기 혐의 달미

### 용산기지 공사 수주 대가로 건설업체에 40만 달러 골격

주한 미군 기지에서 일했던 전직 미군무원이 건설업체로부터 40만 달러(약 5억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미국 맨해튼 연방 지방검찰청을 인용해 로이터 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 거주하는 김영범(62)으로 알려진 용의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 용산과 케이시 기지에 근무하며 공사 계약을 감독하는 직책을 맡았다.

맨해튼 검찰은 김씨가 미군 병사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방폭문과 같은 장비에

대한 계약을 뇌물을 준 회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밝혔다.

북한과의 접경 지역인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케이시 기지는 2018년 10월 레드 클라우드 기지 폐쇄 후 동두천의 케이시 기지와 용산기지가 합병돼 단일부대에서 두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데미안 윌리엄스 맨해튼 연방지검사는 “김씨의 업무와 의무가 미군과 병력에 미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김씨는 돈을 받는 대가로 의무를 배신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6건의 전신 사기, 뇌물 수수 및

돈세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맨해튼 연방 지방법원에 출석한 뒤 뉴저지주에 있는 가족과 함께 가택 구금을 조건으로 2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김씨는 이밖에도 미군 기지의 체육관을 수리하는 100만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국에 본사를 둔 난방 환기 공조 장비 업체로부터 1만2074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미 연방검찰은 또한 그가 미국과 중국 기업이 제조한 부품을 쓰면서 한국에 본사를 둔 업체에서도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원석 기자 wshan@skyedaily.com

CJ CHEILJEDANG

남자의 건강기능식품

# CJ 전립소

전립선 건강은 물론, 정상적인  
면역기능, 항산화, 에너지 활력까지!  
100% 미국산 소팔메토

- 기능성 원료인 소팔메토의 인체시험 결과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 증가, 야뇨/소변속도 개선, 남성 삶의 질 개선 확인
- 국내 최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기능성 인정
- 미국 FDA 안전성 기준 충족 프리미엄 원료 사용

※ 09-18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산실적 기준

10년 연속 판매 1위

No. 1

나의 건강 타당도인덱스 리턴업 Returnup

소팔메토 열매추출물, 비타민 B군 4종, 셀레늄, 아연

건강기능식품 30g(500mg X 60캡슐)

**CJ 전립소 소팔메토 파워**

맨케어파워 옥타코사놀 **3개월분 증정**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80-777-6655